

소음방지에 방화동영 머무치지 않는 두산주류의

직장 회식자리에서 빠져서는 안될 술, 직장인의 애환을 달래주는 소주, 이렇게 우리 삶 깊숙이 함께 하고 있는 소주를 생산하는 (주)두산주류 강릉공장은 지난 제38회 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노동부장관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PSM(공정안전관리) 심사P(자율) 등급 지정 사업장,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무노조 무분규 사업장, 소주업계는 물론 강원도내 최초로 환경친화기업 3회 연속 지정으로, 이미 안전하고 쾌적하며 편안한 기업으로 정평이 난 (주)두산주류 강릉공장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4년째 소음 저감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1. 소음 정도

소음저감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에 이곳은 주류나 음료 제조공정에서 병 마찰음과 컨베이어 등 기계 구동소음으로 평균 10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다.

특히 사업장 면적에 비해 기계 조밀도가 높아, 소음의 강도는 컸으며 쉽게 줄이기도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2002년이전에는 기준 소음 90dB을 초과하는 소음측정대상사업장이었고,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도 2년에 1회에서 1년에 1회를 받는 등 특별관리가 되어왔다.

2. 소음 저감 예방활동의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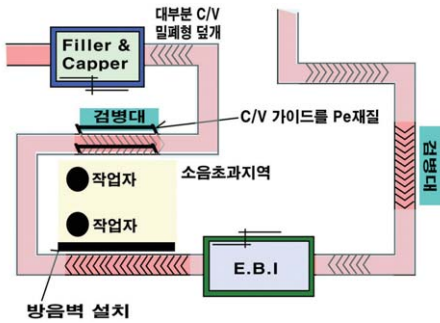
(주)두산주류 강릉공장에서는 2002년에 처음으로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에서 소음에 의한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했다.

그 상태를 방치하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한치의 지체도 없이 시작한 것이 소음저감대책이다. 각 공정별 주소음 발생원 세부분석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토대로 2003년에는 소음저감 대책 계획 수립 및 시행을 하여 최근 4년동안 소음감소를 위해서만 6억원의 투자를 하였다. 그 결과, 지난 하반기부터 사업장내 평균 소음이 90dB로 낮춰졌다.



3. 소음저감 사례

소음 저감을 위해 설비를 보완하고 신규 생산라인을 설치·변경하는 등 소음 방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가. 모든 라인 밀폐형 덮개 설치

강릉공장내 모든 라인 주요 작업부분의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 소음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작업장소 특성에 맞는 소음대책을 강구하였다.

검병대와 같이 근로자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구간을 제외한 모든 컨베이어 구간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하였고, 설비보완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방호벽을 설치하였다.

또한, 병과의 마찰음이 많이 발생하는 검병대 구간에 대해서는 컨베이어벨트 가이드를 저소음의 플라스틱 재질(Pe 재질)의 가이드로 설치하였다.

나. 주기계에 방음림 설치

Filler, Capper와 E.B.I 등은 각 공정의 주기계장치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특히, Filler는 병에 소주를 주입하는 원형 공정으로 기계음이 많고, E.B.I도 병마개를 닫고 병 상태를 검사하는 공정으로 발생 소음이 평균 약 95dB 이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정들을 설비를 보완함으로써 소음을 감소시키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주기계 전체에 차폐형 방음림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미치는 소음을 80dB이하로 떨어뜨렸다. 근로자에게 귀마개까지 지급하고 있으니 실질



적인 소음은 그 이하이다.

다. 철저한 근로자 순환 배치


설비의 보완이나 소음 방지 설비에도 불구하고 높은 소음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순환배치를 통해 장기간 고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4. 개선효과

이러한 철저한 소음저감대책을 가동하여 현재 28개 라인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평균 소음은 90dB이하이고, 부분적으로 80dB 이하로 떨어진 작업구간도 발생하면서 최근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에서는 단 한사람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이 모범이 되어 군산공장에서 소음저감 사례를 브리핑하였고, 강릉공장을 표본삼아 타 공장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소음저감을 위해 한결같이 매진하기까지는 확고한 안전제일주의자인 정재진 공장장과 최선의 안전방법을 찾는 강릉공장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소음 감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투자한다는 이곳 사람들의 자세에서 노동부 장관 단 체표창을 왜 받게 되었는지 알것 같았다.

앞으로는 흡음벽 설치 등으로 근원적 소음저감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김현학 대리의 의지에서 조용한 (주)두산주류 강릉공장을 미리 보는 듯 하였다.  (최종덕 기자)